



맨유 퍼거슨 감독

최고 감독 지략 대결 ... 지구촌이 '들썩'

'꿈의 무대'로 불리는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양팀의 지휘봉을 쥔 두 명장이 벌이는 맞대결로도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맨유)의 알렉스 퍼거슨(70) 감독과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호셉 과르디올라(40) 감독은 오는 29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2010-201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른다.

맨유는 지난 2009년 결승전에서도 만났던 바르셀로나에 0-2 완패한 아픔이 있어 실욕을 노리고 있다. 퍼거슨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주위의 말은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선수들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며 선수들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퍼거슨에게는 올 시즌 50골 이상을 터뜨린 '마라도나의 재림' 리오넬 메시에 대한



그는 현지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2009년 결승전에서도 전반에는 맨유가 유리보다 강했다. 두 팀의 수준은 똑같다. 맨유는 강하고 경쟁력을 갖춘 팀이며, 4~5개의 포메이션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맨유는 필요하면 물러나서 수비도 할 수 있는 팀이다. 그들을 꺾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찾고 있다"라며 결승전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르셀로나의 사령탑에 앉은 이후 스페인 정규리그 3연패를 비롯 모두 9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우승 청부사'다. 1986년 11월 맨유 감독으로 부임한 퍼거슨은 무려 25년간 맨유를 이끌며 잉글랜드 축구 사상 최초로 트레블(정규리그·FA컵·챔피언스리그)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다인 19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패기'를 앞세우는 과르디올라와 '노련미'가 넘치는 퍼거슨의 웨블리 혈전은 축구 팬들의 기억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명승부가 될 것임에 틀림 없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맨유 퍼거슨·바르샤 과르디올라 29일 새벽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대비책도 있는 것 같다. 그는 "우리는 이미 메시가 버티고 있는 바르셀로나를 세 차례나 상대한 경험이 있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그 선수를 막는 방법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맨유의 전력 상상을 경계하는 눈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08년 5월



바르셀로나 과르디올라 감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1878년 알렉스 퍼거슨(70세·1986년부임) ·1998~1999 잉글랜드 최초 3관왕 ·2000~2001 최초 리그 3연패 ·2010~2011 역대 최다 19회 리그 우승 정규리그 19회·FA컵 11회·유럽챔스리그 3회·유럽컵 위너스컵 1회·FIFA 클럽월드컵 1회 등 루니·비디치·박지성·에르난데스	창단 감독 주요경력 우승 주요선수	1899년 호셉 과르디올라(40세·2008년 부임) ·2008~2009 스페인 최초 3관왕 ·2010~2011 리그 3연패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최연소 감독(2009년) 리그21회·스페인컵 25회·유럽 챔피언스리그 3회·유럽컵 위너스컵 4회·FIFA 클럽월드컵 1회 등 메시·이니에스타·사비·푸울	FCB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	--------------------------------	---	-----------------------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샤에 두 번은 안저 내 모든 것 쏟아부을 것”

박지성 결연한 의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30)이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박지성은 25일 맨유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한 번 패배를 당한 상대에게 같은 무대에서 또 질 수는 없다”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24일(현지시간) 영국 캐링턴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연습 구장에서 열린 UEFA 주최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진행됐다.
 박지성은 먼저 “준비를 잘하고 있다.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며 “이 좋은 컨디션을 결승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승전에서 맞붙는 FC바르셀

로나에 0-2로 졌던 200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결승전을 다시 봤다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해야 하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박지성은 “당연히 복수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승부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년 전에 비해 두 팀 모두 선수 구성이 달라졌다고 한 박지성은 “(맨유가) 더 강한 팀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C바르셀로나에 대해서도 “역대 최강이라는 퍼거슨 감독의 말에 동의한다”며 “결승에서 맞붙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FC바르셀로나의 간판선수인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말에는 “경기를 통해 보여주겠다”며 “코칭스태프가 결승전에 맞춰 짜놓은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습뉴스



박경태·심동섭 KIA 좌완 고민에 '숨통'

깜짝 활약 불펜에 희망

박경태·심동섭으로 날개를 단 KIA 타이거즈의 '좌완' 고민이 해결될까? 마운드 강팀이라는 KIA지만 좌완 특이 좌완 불펜진은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혀왔다. 조범현 감독은 2008년 부임 이후 좌완 발급을 위해 고심을 했지만 기대감을 채워준 이렇다할 선수가 없었다. 우완 일색의 불펜으로 우승까지 이뤘지만 경기 중간 흐름을 바꿔줄 좌완 투수가 KIA에게는 아쉬움이었다.
 그러나 올 시즌 제구 잡기에 성공한 박경태와 씩씩한 2년차 심동섭이 마운드를 지켜주면서 KIA의 불펜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박경태는 좋은 구위의 공을 가지기도 마운드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1·2군을 오르내렸던 좌완 유망주. 올 시즌 스피드보다 제구에 초점을 맞춘 박경태는 한층 안정된 피칭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마운드 막동이

심동섭의 깜짝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구색을 갖췄다.
 1차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심동섭은 입단 첫해인 지난해 5경기에 나와 3과 3분의2이닝을 소화하면서 6.75의 방어율을 1홀드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포크볼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지만 제구 난조·경험부족 그리고 허리 통증에 발목을 잡혔다.
 재활군에 머물던 심동섭은 올 시즌 허리 통증을 털고 패기 넘치는 피칭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22일 한화와의 군산경기에서는 윤석민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서 3이닝을 2피안타 1사구 4탈삼진 1실점(무자책)으로 막으며 통산 첫 세이브를 올리기도 했다.
 심동섭은 “아마 때보다 스피드도 3~4km 빨라졌고, 포크보다 손가락을 덜 벌려 잡는 스피리터도 장착했다. 한결 여유도 생겼다. 자신있게 던지자는 생각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소년체전 28일 경남서 개막 광주 13위·전남 8위 도전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 한마당인 전국소년체전이 28일 경남 일원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40회를 맞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16개 시·도에서 1만6998명(선수 1만2004명·임원 4875명)이 참가해 31일까지 4일간 초등부 17개 종목과 중·고부 3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13위를 목표로 삼은 광주는 카누, 요트, 트라이애슬론을 제외한 30개 종목에 선수 733명과 임원 300명 등 총 1033명의 선수단을 출전시킨다. 역대 김철민(광주체육중·3년)과 육상 한정미(광주체육중·2년)가 각각 3관왕 2관왕을 노리고 있고, 최근 전국대회를 휩쓸고 있는 양궁도 임상 가능성이 크다. 전통 강세종목인 체조와 태권도, 레슬링 종목 등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은 32개 종목에 선수 800명과 임원 339명 등 총 1139명을 파견해 종합 8위에 도전한다. 역대 이양재(안도중·3년)가 3관왕에 도전하고, 육상 이아영(전남체육중·3년)은 2관왕을 향해 달린다. 쌍둥이 태권소년 고호재·고혁재(이상 전남체육중·3년)도 지난해에 이어 동반 우승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페백식 / 페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